**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설교자: 손신일 목사 (꼬빌리시교회 일본공동체)**

**설교본문**

**창세기 18장 1-5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설교**

1 지난 해 IOC총회에서 2020년 올림픽을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프레젠테이션에서 동경 대표는 „오모테나시“라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오모테나시“란 사람을 진심으로 대접함을 뜻하며, 때로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환대한다는 말입니다. 일본에는 그 „오모테나시“의 전통이 있다고 어필하면서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일본뿐 아니라 어느 나라나 지역이든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줄 압니다. 체코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일본 특유의 대접이라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茶道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茶道에서는 한 잔의 녹차를 대접한다는 단순한 행위 속에 여러 예의범절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정성 어린 대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를 대접할 때에 종종 꽃꽂이(이께바나)가 장식됩니다만, 이것도 대접(오모테나시)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꽃꽂이가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분을 환대한다는 뜻과 주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13:2)
성경에서는 특히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세 사람을 진심으로 대접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현대의 도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이라서 가능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심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는 부지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일이기도 하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 계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대가를 바라고 하는 대접으로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마태6:1)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성경은 또한 손님 대접 이상으로 ‚거류민‘에 대한 배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19:33-34 말씀,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란 일시 체류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류민으로 애굽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으로 외국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출23:9) 하였습니다. 거류민, 나그네 됨을 몸소 알기에,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평등하게 여기며,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나그네, 거류민을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 근거는 너희도 또한 나그네며 거류민이었으며,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 사정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4 체코에 사는 외국인은 거류민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온 우리들은 체코에서는 거류민이며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체코의 문화 가운데 뿌리를 펴고 있지는 않습니다. 체코 말도 능숙하지 못하며, 생활 가운데 당황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생활의 장이 주어지고, 체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는 믿음을 함께 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따뜻하게 영접받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대접을 풍요하게 받고 있습니다. 체코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거류민에게는 거류민의 고생이 따라옴은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국제화가 진행되는 이 세계에서, 거류민의 마음과 사정을 아는 일은 더욱더 필요하게 되어갑니다. 물론, 거류민의 입장으로는, 거류하는 나라의 사람들과 그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서로가 이해하며 대접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 질 것입니다.

5 상대의 마음과 사정을 이해해야만,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류민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거류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입장에 놓여진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또한 거류민, 나그네의 마음을 이해해야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백성은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기에,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이며 나그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태어나서 자란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도 임시 거처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거류민으로서 거류민의 사정을 알 때에 역시 거류자인 이웃을 자기자신처럼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거류민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이 세상의 나그네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류민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라면, 주의 백성은 당연히 주님을 따라 거류자인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6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가9:41)
 주님의 이름으로 한 그릇의 물, 한 잔의 차를 대접하는 자는 반드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뿐 아니라, 나그네, 거류민, 이웃에 대한 대접은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자가 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25:35-36)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을 해 드렸는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25:40) 마음이 담긴 대접은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대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